

## 북한 ‘어버이수령’의 탄생\*

1972년 이전 북한 공식문헌에서의 출현을 중심으로

이창현\*\*

본 연구는 북한 문헌에 기반하여 ‘어버이수령’의 등장 과정과 특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는 유일상상체계가 확립된 1967년 이전에 이미 ‘아버지원수님’, ‘어버이수령’이 출현했다. 1950년대 말 혁명전통교육과 유아녀학원을 통해 김일성의 아버지 이미지가 구체화되었고, 고아와 어린이들의 ‘아버지원수님’이 등장하였다. 1962년 김일성의 50회 생일에 ‘어버이수령’ 호칭이 등장하였으며, 청소년, 청년들에게까지 어버이수령이 확산하였다. 1967년 이후 ‘어버이수령’은 전 사회에 전파되었으며 김일성은 전 인민의 아버지로 등극하였다. 북한 당국은 ‘어버이수령’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전일적으로 전파한 것은 아니었다.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버지 이미지와 호칭이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형태를 띠었다. 북한에서 ‘어버이수령’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의미는 주로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이미지에 가까웠으며, 당시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장, 정치적 생명을 주신 아버지 등 현재적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주제어: 어버이수령, 아버지원수님, 어머니당, 아버지 이미지, 점진적 확산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극장국가 북한의 기원, 1962~1972: 어버이수령의 등장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2023)의 제3장 3절, 제4장 3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1. 서론

“성스러운 10년, 진정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민의 아버지의 위대한 장정이었다.”<sup>1)</sup>

2021년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아 『로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를 ‘인민의 아버지’, ‘하늘처럼 믿고 사는 우리 아버지’로 표현했다. 기사 본문에서 지난 10년을 ‘위민헌신의 성스러운 10년’으로 규정하고, 김일성을 ‘아버 이수령님’, 김정일을 ‘아버이장군님’이라 칭하면서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부여했던 ‘아버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김정은에게도 연결하였다. 집권 10년을 넘어서며 김정은 총비서를 ‘우리 아버지’, ‘인민의 아버지’로 칭하고 그에게 아버지 이미지를 덧입히는 기획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소년단 설맞이 모임에서 김정은을 ‘경애하는 아버지’, ‘아버지원수님’이라 칭하고, 김정은에 대한 기록영화 제목에 「인민의 아버지」를 붙이는 등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 가졌던 아버지 이미지를 대를 이어 지속하고 있다.<sup>2)</sup> 2022년 11월 북한의 화성-17 발사 현장에 함께 등장한 이레 김정은 총비서가 계속해서 딸 김주애를 동반하여 공식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또한 김정은에 대한 아버지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3)</sup>

---

1) “위민헌신의 성스러운 10년: 하늘처럼 믿고 사는 우리 아버지,” 『로동신문』, 2021년 4월 17일.

2) “학생소년들의 2023년 설맞이공연 <더 높이 올려라 행복의 노래> 진행: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로동신문』, 2023년 1월 2일; “인민의 아버지,” 조선중앙TV, 2022년 10월 17일.

3)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 또한 김주애의 등장을 김정은의 아버지 이미지 연출과 관련해 해석하고 있다. “김주애 등장, ‘후계’ 아닌 ‘인민의 아버지 김정은’에 초점,” 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11월 18일; “김주애 등장, ‘후계’ 아닌 ‘인민의 어

국가 지도자를 아버지에 비유하거나 독재자에게 부모 이미지를 덧입히는 경우는 비단 북한에만 있지 않다. 독립과 건국을 이끈 지도자는 ‘건국의 아버지’로 흔히 비유되고, 독재국가 및 권위주의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이 자신을 아버지에 빗대어 왔다.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국가의 전범(典範)으로 모방해 온 소련의 경우에도 어린이를 중심으로 스탈린을 ‘아버지’로 빗대어 강조하였다.<sup>4)</sup> 그러나 북한은 비유를 넘어 국가구조 자체를 가족 형태로 치환하고, 구성원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유기체적인 구조로 결속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이를 3대째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어버이수령’, ‘어머니당’, 자녀 근로인민대중로 이어지는 ‘혁명적 대가정’ 아래 생사를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로 그려진다.<sup>5)6)</sup> 수령은 인민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주시는 어버이’이며,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어버이장군님’, ‘아버지원수님’은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일반적 호칭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 당국은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의 사전적 정의까지 수정하였으며 ‘어버이수령’과 ‘어머니당’은 새로운 용어로 등장했다.<sup>7)</sup> 북한 인민은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

---

버이 김정은’에 초점,” 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11월 18일; “김정은 얼굴 쓰다듬은 주애… 딸 이용혜 이미지 정치, 후계구도 드러내,” 『조선일보』, 2023년 2월 11일; 박원근, “김주애,” 『국민일보』, 2023년 3월 6일.

- 4) Catriona Kelly, “Riding the Magic Carpet: Children and Leader Cult in the Stalin Era,”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49, No.2(2005), pp. 218~219.
- 5) 이 글에서 ‘어버이수령’, ‘어머니당’, ‘아버지원수님’은 북한식 표현에 따라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본문에서 강조의 의미로 작은따옴표( ‘ ’ )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작은따옴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계없이 의미는 동일하다.
- 6)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서울: 책세상, 2001), 99~104쪽.
- 7) 1962년판 『조선말사전』에는 ‘아버지’를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으로 간단하게 정의하였으나 1973년판 『조선 문화어 사전』에는 ‘아버지’의 기존 정의에

지와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신 아버지 두 아버지를 가진 존재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대가정 아래에서 ‘장군님 식솔’로 규정되고 있다.<sup>8)</sup>

---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여주며 극진히 보살펴주는 사람»을 높이어이르는 말’을 추가하였다. 이후 북한 사전에는 수령의 어버이 이미지를 뜻하는 정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010년판 『조선말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버지’를 정의내린다. ①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 또는 가정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②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신 분»을 다함없는 친근감을 가지고 높여 부르는 말, ③ 혈연적 관계가 없는 «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높여 이르는 말. ‘어머니’ 또한 1973년판에 새로운 정의로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여주며 극진히 보살펴주는 존재»를 비겨 이르는 말’을 추가하였다. 1973년판 『조선 문화어 사전』 이후 ‘어버이수령’, ‘어머니당’과 같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였다. 특히 ‘어버이수령’은 ‘«자기를 낳아 기른 친어버이보다 더 깊은 사랑과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리 인민이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여이르는 말’(1973),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우러러 모시여 이르는 말’(2010)로 정의하였다. ‘어머니당’의 경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을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당으로 받들며 무한한 신뢰의 마음으로 우리 인민이 이르는 말’(197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을 무한한 신뢰의 마음으로 이르는 말’(2010)로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말사전』[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출판사, 1962(변각: 학우서방, 1965)], 4409, 4525쪽;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 문화어 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935, 959쪽;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504, 1543, 1544쪽.

8) Heonik Kwon & Byung-Ho Chung,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2),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파주: 창비, 2013), 224~226쪽. ‘장군님식솔’이란 표현은 현재도 유효하다. “성스러운 10년의 뜻이

그런데 이 ‘어버이수령’은 북한의 건국 당시부터 존재했던 개념이 아니며, 갑자기 등장한 용어이다. 1950년대 북한 공식 문헌을 살펴보면 ‘어버이수령’이라는 호칭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1960년대 북한 사전에 ‘어버이수령’은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버이수령’은 1960년대 후반 『로동신문』 곳곳에 나타나고, 1973년판 사전에 수록된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 약 10년여 기간에 갑자기 창조된 셈이다.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 인류학자, 사회심리학자들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미 전달의 역할을 넘어선다.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가 강조하듯이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규정하며, 모든 단어는 개념화된 프레임을 제공한다.<sup>9)</sup> 특히 정치에서 언어는 지지자들에게 계속된 순응을 얻게 하고, 부지불식간에 지속적으로 상징체계를 전달한다.<sup>10)</sup>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는 그 단어가 지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으며 사회적 관계와 행위에 영향을 주는 프레임을 생성한다.<sup>11)</sup> 따라서 북한 정치사회 연구에 있어 ‘어버이수령’의 등장 및 형성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한 단어의 출현을 넘어 새로운 프레임의 발현을 추적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을 추억 우리는 영원한 장군님식솔,” 『로동신문』, 2022년 12월 17일.

9) George Lakoff, *The All New Don't Think of an Elephant!* (White River Junction: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2014) pp.xi~xii

10) 머레이 에델만(Murray Edelman), 『정책결정의 상징성』, 유영옥 옮김(서울: 홍익재, 1994), 117, 134쪽.

11) 존 듀이(John Dewey)와 아서 F. 벤틀리(Arthur F. Bentley)가 지적하듯이 이름 붙이기(naming)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직접적 인지의 형태로 볼 필요가 있다. John Dewey and Arthur F. Bentley, *Knowing and Known* (Boston: Beacon Press, 1960), p.147; 전미영, “김정은 시대의 정치언어: 상징과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4쪽에서 재인용.

‘어버이수령’의 등장은 북한을 극장국가의 시각으로 접근할 때에도 의미가 있다. 19세기 발리섬의 정치체인 ‘느가라’에 집중하여 다양한 상징과 의례를 통해 모범적 체제를 대중들에게 투사하는 가운데 국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제 정치적 권력을 구현해가는 과정을 설명한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시각은 문화의 힘을 강조하고, 정치적 힘에 한정해 국가권력을 파악했던 기존의 접근에 경종을 울렸다.<sup>12)</sup> 그리고 권헌익과 정병호는 ‘현대적 극장국가’의 시각으로 북한을 재조명하여 상징과 서사, 의례를 통해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의 권력 세습을 설명하였다.<sup>13)</sup> 현대적 극장국가 체제에서는 근대국가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전통과 상징, 의례를 창조하고 이를 조직적 체제와 현대적 전파수단을 통해 대중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사하며 목표로 한 정치체제를 획득한다.<sup>14)</sup> ‘어버이수령’에 대해 극장국가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어버이수령’의 등장과 확산은 새롭게 창조된 개념 및 상징체제가 현대 국가권력체제를 통해 실제 정치적 권력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인민은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모든 매체를 통해 수령을 아버지로 접하고, 일상 속에서 평생 ‘어버이수령’ 호칭을 부르며, 실제 아버지 사랑과 배려를 배우고 칭송할 것을 요구 받는다. 김일성, 김정일의 영결식에서 많은 북한 인민들은 친부모를

12) Clifford Geertz, *Negara: The Theatre State in 19th Century Bal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13)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2장 참조.

14) 현대적 극장국가체제를 고찰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한 데 대해서는 이창현, “극장국가 북한의 기원, 1962~1972: 어버이수령의 등장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33~46쪽 참조.

얕은 듯한 깊은 슬픔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아버이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으며, 3대에 걸쳐 아버지 이미지를 인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아버지수령은 단순한 호칭이나 비유를 넘어서며 매우 중요한 상징체제로 자리 잡았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북한에서 ‘아버이수령’이란 호칭이 일반 대중에게 등장하고 확산되는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기층의 눈높이에서 인민들에게 제시되는 ‘아버지원수님’, ‘아버이수령’의 호칭이 어떠한 과정과 맥락 속에 전파되고 사회적 의미를 획득해 가는지에 주목한다. 실제 위로부터의 정책 수립과 결정 차원이 아니라 대중의 눈높이에서 ‘아버이수령’이 제시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은 자칫하면 상층부에서의 결정적 인과 관계와 중요한 함의 없이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아버이수령’ 등장과 확산과 관련해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복기하면서 실제 ‘아버이수령’ 개념이 어떻게 인민들에게 자리 잡아 가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층 차원에서 ‘아버이수령’의 확산과 형성을 통해 이후 아래에서 위로 ‘아버이수령’이 주도되어 가는 과정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아버이수령’이 광범위하게 강조되다 보니 그동안 아버지수령의 등장은 연구자들의 관심 바깥에 머물렀다. 북한 아버지수령과 관련한 연구는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북한의 가부장제 담론 또는 가족국가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논의되었다.<sup>15)</sup> 북한의 수령제 성립 또는 통치 방편과

---

15) 헬렌-루이즈 헌터(Hunter, Helen-Louise), 『CIA 북한보고서』, 남성욱·김은영·윤김(서울: 한승, 2001), 4장;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서울: 한울, 2003), 2장, 5장; 강진웅, “남북한의 국가와 가족: 체제변화와 가족주의의 변

관련해 유교담론을 설명하면서 아버지수령을 언급하기도 하였다.<sup>16)</sup> 북한인민과 지도자와의 관계,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유일지도체계의 형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수령을 다룬 연구도 있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수령을 일부 언급할 뿐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1970년대 이후 이미 확립된 아버지수령을 전제하여 그 이전에 아버지수령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아버지수령 자체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타났으나 아버지에 집중하거나 현재적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18)</sup>

기존 연구에서 ‘아버지수령’의 등장 시기와 관련해 연구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정교진은 1949년 북한 당국이 국영 탁아소 및 유치원을 세우며 김일성 아버지 이미지가 생성되었으며, 『조선중앙년감』 분석을 근거로 ‘아버지수령’ 호칭은 1968년에 등장했다고 주장한다.<sup>19)</sup> 강

---

형,” 『한국사학회』, 제44집 5호(2010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서동만·남기정 옮김(파주: 돌베개, 2002), 145~146쪽;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남기정 옮김(파주: 창비, 2014), 198쪽;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파주: 창비, 2020), 3장, 4장.

16) 스키즈 마사유키(鐸木昌之),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서울: 동아일보사, 1994), 4장; 서동만, “북조선의 유교 담론에 관하여: 김정일의 통치 담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6년 상반기호(2006).

17)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2, 3부; 최경희, “북한 ‘수령권력’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 제32권 4호(2016).

18) 정교진,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 ‘아버지’ 성격 분석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1호(2017); 김희정, “북한의 ‘아버지’ 이미지와 애착,”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2호(2019); 박세진, “프로파간다라는 시선을 넘어서: 수령님 노래와 아버지의 나라,” 『문화와 사회』, 제27권 2호(2019); 박세진, “아버지수령의 이름과 북조선 사회의 원자(原子): 사회정치적 생명의 말과 삶,” 『문화와 사회』, 제30권 1호(2022).



진웅은 1950년대부터 아버지 호칭이 사용되었으나 문학 작품에 머물렀으며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당 공식 기관지에 나타난다고 보았다.<sup>20)</sup> 와다 하루키는 1961년 황순희의 글 “그이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다”를 아버지수령의 기원으로 삼는다.<sup>21)</sup> 최경희는 북한에서 ‘수령’이라는 용어가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 이후에 나타났으며, 1971년 김일성 60세 생일을 계기로 김일성 배지를 대량 보급하고 ‘아버지원수님’, ‘아버이수령’을 존칭토록 하였다고 분석하였다.<sup>22)</sup> 다른 연구들은 ‘아버이수령’의 탄생보다는 전일적으로 확산되던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모습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버이수령’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1967년 유일체제 성립 이후로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버이’ 이미지의 출현, ‘아버이수령’의 등장 및 확산 시점은 연구자에 따라 1949년부터 1971년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아버이수령’의 최초의 형태와 의미 또한 제대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아버이수령’의 모습이 북한 사회에서 늘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동만이 지적한 대로 ‘아버이수령’이 북한 사회에서 지속해서 발전하고 변용된 것이라면 ‘아버이수령’에 대한 현재 모습은 첫 등장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sup>23)</sup> 그리고 그 시기와 형태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1967년

---

19) 아버지 이미지 생성의 경우 실증적인 분석보다는 추정에 가깝고, 아버지수령의 등장과 관련해서도 실제 최초 등장보다는 전면적 등장에 초점을 두었다. 정교진,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 ‘아버이’ 성격 분석연구,” 32~34쪽.

20) 강진웅, 『주체의 나라 북한』(서울: 오월의 봄, 2018), 100~105쪽.

21)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145~146쪽.

22) 최경희, “북한 ‘수령권력’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 142~143쪽.

23) 서동만, “북조선의 유교 담론에 관하여: 김정일의 통치 담론을 중심으로,” 277~297쪽.

유일체제 이전에 출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어버이수령의 탄생 시점과 전파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특히, 인민 대중에게 ‘어버이수령’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고 확산해 갔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어버이수령 탄생과 관련해 실제 전파 동학을 고찰한다. 당시 ‘어버이수령’이 전파된 방식과 체계, 획득된 의미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당시 북한 당국이 어떤 의도와 기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버이수령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어버이수령 의미의 원형은 무엇이었는지 찾고자 한다. 1986년에 들어서야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사회주의대가정론이 전면화되었기에 어버이수령은 출현 당시 현재와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출현 당시 어버이수령이 가진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공식 문헌 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당의 방침과 정책이 인민대중의 눈높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범위를 1972년까지로 한정하였다. 김일성이 주석에 취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주의 개정 헌법이 등장한 1972년은 북한 사회에서 ‘어버이수령’이 완전히 안착한 상징적인 해이기도 하다. 자료 또한 1972년 이전에 발행된 공식 문헌을 주로 사용하였다. 권력과 관련한 대부분의 개념, 사건이 북한 정권의 의도에 따라 추후 역사적으로 수정되었고, ‘어버이수령’ 또한 영향을 받았기에 1972년 이후 발간된 자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다. 1972년 이전 자료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첫 발표 시점에 가장 가깝게 발행된 자료를 사용하고자 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버이수령’의 등장과 관련하여 1959년, 1962년, 1967년 시점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세 시기를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 2. 일반적인 국부(國父)로서 ‘아버이’ 비유(1945~1958년)

해방 시기부터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모방하고 이식하였던 북한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숭배 또한 비슷한 방식을 따랐다. 당시 소련에서의 스탈린 숭배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여타 사회주의국가들 또한 소련을 따라 자국의 최고지도자를 높였다. 해방 직후부터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났다. 스탈린을 두고 ‘소련의 수령’이라 칭해 왔기에 1950년대 초반 김일성에 대해 ‘조선 인민의 수령’, ‘경애하는 수령’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sup>24)</sup> 물론 이러한 개인숭배는 당시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김일성 권력이 커짐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해 갔다. 한국전쟁을 통해 당내 경쟁자가 일부 제거되고 김일성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지면서 1950년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점차 스탈린과 비슷하게 확산해 갔다.<sup>25)</sup>

이 시기 김일성은 일부 사례이긴 하나 아버지 사랑을 가진 존재로

- 
- 24) “쓰팔린대원수 탄생 70주년을 앞두고: 위대한 쓰팔린 대원수는 소련인민의 수령이며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이다(조선문화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기영),” 『로동신문』, 1949년 12월 15일, 2면. 김일성 수령 언급에 대해서는 『로동신문』, 1950년 6월 27일, 2면; 1951년 1월 27일, 2면 참조. 북한 공간 문헌에서의 수령 호칭 등장과 확산에 대해서는 유광진·김무곤·김용현, “로동신문의 변화를 통해 본 북한 변화(1945~1972): 정치군사부문 변화,”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서울: 선인, 2006), 71~102쪽 참조.
- 25) 서동만,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서동만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북조선 연구』(파주: 창비, 2010), 141~142쪽.

그려진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며 비유적 표현에 머물렀다. 또한 주로 수필이나 기고문, 문학 작품과 같은 개인적인 글에서 나타났으며, 기사나 사설, 당 공식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았다.<sup>26)</sup> 특히 당시 김일성의 나이가 40대였기에 아버지 비유도 전 국민이 아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다. 일례로 1958년 국제아동절을 맞아 『로동신문』 지면에 인민배우 황철의 수필이 실리는데, 다음과 같이 김일성을 어버이에 비유하여 묘사하였다.

《난 우리 원수님을 봤다!》

《난 김일성 원수님 가까이에 갔됐어.》

어린이들은 자기들을 꽃봉오리고 보살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어버이를 가까이에 모시는 일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다.<sup>27)</sup>

이 시기 『로동신문』에서 김일성을 어버이로 은유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비유에만 머물렀다. 공식적인 기사에서 김일성은 조선로동당과 정부를 대표하는 수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당대회나 국가 행사에서 김일성을 어버이로 지칭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당시 어버이 비유는 김일성만 독점한 것은 아니었다. 육친적 사랑, 친어버이와 같은 사랑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존재에게 모두 해당할 수 있었다. 실제로 김일성뿐만 아니라 조선로동당에도 어버이 비유를 적용하였으며 보육원, 교사 등 아이들과 연관한 다양한 사람, 기관에도 어버이 사랑을 빗대었다.<sup>28)</sup> 당시에는 ‘당과 정부’, ‘당의 자

26) 강진웅, 『주체의 나라 북한』, 102쪽.

27) 황철, “어린이에 대한 나의 생각,” 『로동신문』, 1958년 6월 1일, 3면.

28)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여 당과 정부의 배려와 중국

애로운 품’, ‘당과 공화국 정부의 극진한 사랑’과 같이 김일성보다 당이 먼저 강조되었기에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 또한 김일성만이 아닌 당도 아버지 비유의 주체가 되었다.<sup>29)</sup> 이렇기 때문에 ‘당의 아들’, ‘조국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더 사용되고, 김일성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를 아버지로 혼재하여 묘사하는 경우도 많았다.<sup>30)</sup>

1950년대 후반의 경우 사회주의권에서는 오히려 개인숭배가 감소하는 시기였다. 1956년 2월 25일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 비밀연설을 통해 흐루쇼프가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한 이래 당시 사회주의국가 전반에서 개인숭배 비판이 연이어 일어났다. 북한 또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sup>31)</sup> 1950년대 말까지 김일성은 개인숭배와 관련해서도 제한적이었고, 아버지 이미지에 있어서도 친아버지 같은 존재로 일부 은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독점적이고 고유한 이미지를 갖지 못했다. 이 당시 김일성에 대한 아버지 비유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의 지도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

인민의 육친적 사랑에 보답하자!(중국에서 귀국한 우리 나라 전제 고아들 앞에 서 한 김일부수상의 연설), 『로동신문』, 1958년 7월 1일, 2면.

29) “자애로운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라!,” 『로동신문』, 1957년 6월 1일, 3면.

30) 대표적으로 “당은 언제나 아버지 손길로 이끌어주네. 당은 언제나 아버지의 품 속에 안고서 가네” 등이 있다. 김학연, “꽃봉오리에 대한 생각,” 『로동신문』, 1959년 6월 1일, 3면; 또한 스스로를 ‘당의 아들’로 지칭하거나 아동들을 ‘로동당의 아들’, ‘조국의 아들딸’로 비유하기도 했다. 송영, “승리의 새해여,” 『로동신문』, 1958년 1월 1일, 3면; “김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평양시 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을 축하,” 『로동신문』, 1959년 1월 1일, 2면.

31) 실제 이 기간 동안 김일성을 ‘수령’으로 지칭하는 『로동신문』의 언급 또한 급감한다. 유광진·김무곤·김용현, “로동신문의 변화를 통해 본 북한 변화(1945~1972): 정치·군사부문 변화,” 88, 95쪽.

### 3. 고아·어린이들의 ‘아버지원수님’ 탄생(1959~1961년)

1959년을 기점으로 김일성의 아버지 이미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갈래 흐름 위에서 나타났다. 먼저, 공산주의 교양, 특히 혁명전통의 강화를 통해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강조하면서 김일성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동시에 사회주의 형제국에 맡겨졌던 전쟁고아(戰災孤兒)들이 비슷한 시기에 귀국하면서 유자녀들을 통해 김일성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 둘이 결합하면서 김일성의 아버지 비유는 직접적인 호칭으로 변화하였다. 김일성에 대해 인격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고아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김일성에 대해 ‘아버지’라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원수님’ 호칭이 등장하였다.

#### 1) 혁명전통교육의 강화와 인간적 면모의 아버지 이미지 구축

1958년 말, 북한 당국은 김일성의 교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를 통해 정치사상교육과 혁명전통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 부문에서 혁명전통교육을 전개하였다.<sup>32)</sup> 당시 혁명전통은 한반도 및 주변의 공산주의 운동 전체가 아닌 김일성의 지도하의 항일무장투쟁에만 초점이

---

32)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당 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김일성 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58년 12월 9일, 2~3면. 북한 혁명전통을 다룬 선행 연구로는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문미라, “1950~1960년대 북한의 ‘혁명전통’ 확립과정과 역사인식의 변화,” 『역사와 현실』, 119호(2021); 류승주, “북한의 민족문화전통과 항일혁명전통 수립(1945~1967)”(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참조.

맞추어져 있었다.<sup>33)</sup> 1950년대 후반 밖으로는 흐루쇼프의 개인숭배 비판 및 평화공존 노선 등을 통한 사회주의권 분열을 마주하고, 안으로는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다른 계파를 숙청하고 반종파투쟁을 지속하던 당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통성을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조선인민군의 유일한 전통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 근거한다고 역설하였으며, 학생 및 청년들에게 김일성 중심의 혁명전통을 이미 강조하고 있었다.<sup>34)</sup> 이 상황에서 김일성의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교시가 등장하였고 북한 사회 전 부문에서 혁명전통교육을 강화하는 바람이 불었다.

먼저,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교시 직후인 1958년 말부터 1959년 초 기간에 걸쳐 초급당, 기업소의 선전실을 비롯해 각급 기관에 조

---

33) 당시 혁명전통은 한반도 및 주변에 있었던 공산주의 운동의 전체 시기 및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포괄하지 않았다. “혁명투쟁의 불길에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의 혁명전통, “1930년대 이후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건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을 의미했다. 1920년대 이전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결함’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1930년대 이후 등장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만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김일성 이전 시기 및 다른 계파의 공산주의자들을 혁명전통에서 배제하였다. 김시중,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 『근로자』, 7호(1958), 3~16쪽.

34)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들에 참가한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57년 12월 6일, 1~2면;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인민군 324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동경: 학우서방, 1963), 308~349쪽;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김일성 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58년 3월 20일, 1면.

직적으로 ‘김일성원수 혁명활동연구실’(이후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로 개편)이 설치되었다.<sup>35)</sup> 혁명전통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자료 또한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59년 초부터 『로동신문』 및 각종 기관지에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항일유격전적지를 찾아서”를 연재하고, 보천보전투 기념일(1959년 6월 4일)을 바로 앞두고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를 출간하였으며, 이후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전투 회상기』, 1961년 『항일 무장 투쟁 전적지를 찾아서』를 계속하여 발간하였다.<sup>36)</sup> 문예 분야에서도 혁명전통 강화 흐름

---

35) 예를 들어 1958년 12월 중순 시점에서 평안북도 내 각 군, 리 소재지와 학교, 직장에는 총 863개의 연구실이 설치되었으며, 1959년 4월 함경남도에는 1,300여 개의 연구실이 설치되었다. “공산주의 교양을 실생활과의 련계 속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로동신문』, 1958년 12월 13일, 2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9년 4월 10일, 2면. 1958년 말 ‘김일성원수 혁명활동연구실’ 설치와 관련한 또 다른 기사로는 “공산주의 교양의 강화를 위하여: 평양 방직 공장에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종업원들을 교양,” 『로동신문』, 1958년 12월 14일, 2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 황남 신천군 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1958년 12월 28일, 2면. 『조선로동당력사』(2004년판)에 따르면 1958년 말부터 1959년 상반기까지 북한 전역에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설치했다고 언급하나 본 글은 1958년 말 설치된 ‘김일성원수 혁명활동연구실’이 3~4월 이후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로 개명하거나 확대 개편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287쪽; 이창현, “극장국가 북한의 기원, 1962~1972: 어버이수령의 등장을 중심으로,” 121~126쪽 참조.

36) 『로동신문』에는 1959년 1월 23일 자에 처음으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실렸고, 이후 2~3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작품을 게재하였다. 1959년 7월 25일부터 “항일유격전적지를찾아서” 연재를 시작했다. 김좌혁,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중에서: 동지들! 이 충을 받아주!” 『로동신문』, 1959년 1월 23일, 3면; 민병균 “천리봉,” 『로동신문』, 1959년 7월 25일, 5면



이 반영되었다. 혁명전통 관련 문예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중앙 차원에서 결의하고, 1958년 11월부터 익명의 편집위원회를 통해 항일 빨치산 투쟁을 드러내는 문학 작품이 쏟아졌다.<sup>37)</sup> 동시에 혁명전통교육을 입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혁명 전적지를 연구·정비하고 다양한 혁명 전통 기념물 및 교육 장소를 건립해 갔으며, 혁명 전통 교육자료 또한 풍성하도록 힘을 기울였다.<sup>38)</sup>

이러한 각종 자료는 ‘김일성원수 혁명활동연구실’(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확산되었다.<sup>39)</sup> 연구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혁명전통교육을 진행하고, 혁명 전통을 주제로 독서모임, 연구발표회, 항일 빨치산 활동인사 초청 강의, 항일 빨치산 관련 문예창작대회를 조직하였으며, 혁명전적지 답사대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개최하였다.<sup>40)</sup>

37)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더 많이 훌륭하게 창작하기 위하여: 작가동맹 공개 당 총회에서,” 『로동신문』, 1959년 8월 7일, 2면. 북한 문예계 또한 1959년은 하나의 분수령이다. 1956년부터 58년까지 『조선문학』를 필두로 문학예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가 허용되었던 반면, 1958년 하반기 들어 『조선문학』 편집진이 전원 경질되고 ‘반당적 이색 종파분자’로 규정되었다. 1950년대 후반 북한 문학예술계에서의 매체사적 자율성 증대, 이완과 1958년 급작스런 숙청 및 좌경화 전환에 대해서는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서울: 역락, 2020), 206~220쪽 참조.

38) 『조선중앙년감 1962』(1962.12.25. 발행)(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279쪽; 『조선중앙년감 1961』(1962.6.20. 발행)(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201쪽;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자: 조선 혁명박물관 새 자료들을 보충정비하고 다시 개관,” 『로동신문』, 1961년 1월 25일, 2면; “우리 문학의 혁명전통에 관한 학술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1959년 12월 14일, 3면.

39) 보통교육부문 혁명전통교육에 있어 ‘김일성원수 혁명활동연구실’(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문미라, “1950~1960년대 북한의 ‘혁명전통’ 확립과정과 역사인식의 변화,” 264~265쪽 참조.

특히, 혁명전통교육은 김일성에 대해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그를 친근한 지도자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김일성을 만난 사람들의 시점에서 서술된 각종 회상기는 김일성을 자애롭고 인민들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 딱딱한 당 정책과 역사, 각종 교시를 통해 김일성을 접하던 인민들은 유격대 대원들을 살피고 인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김일성의 인격적인 모습을 교육받았다.

과거 아버지 비유는 당, 정부, 김일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혁명전통교육 강조 이후 아버지 비유는 김일성에게 집중되었다. 특히 항일유격대 시기 아동단 어린이들을 향한 김일성의 미담과 부하들이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배려가 소개되면서 단순한 비유를 넘어 인간적이고 가까운 아버지 이미지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어린이와 부하들을 위한 사랑을 ‘육친적 사랑’으로 표현하고, 김일성을 두고 ‘그이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은유하였다. 황순희는 “항일빨찌산들의 회상기: 그이는 우리의 아버지이다”에서 인민에 대한 김일성의 마음을 ‘아버

- 
- 40) “당의 혁명전통 교양에 노력,” 『로동신문』, 1959년 1월 13일, 2면; “조합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교양,” 『로동신문』, 1959년 1월 16일, 2면; “우리당의 혁명전통으로 청소년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로동신문』, 1959년 1월 23일, 2면; “김일성 원수 항일빨찌산 투쟁의 전적지 청년학생 답사대 현지로 출발,” 『로동신문』, 1959년 2월 5일, 2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혁명전통 교양을 강화: 해산건설사업소 초급당 단체에서,” 『로동신문』, 1959년 2월 11일, 2면; “당의 혁명전통으로 조합원들을 교양: 어랑군 부암리 당 단체에서,” 『로동신문』, 1959년 3월 3일, 2면;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 『로동신문』, 1959년 4월 2일, 2면; “학생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과 결부시켜 정서교양사업을 강화: 평양 제1녀자 고급 중학교에서,” 『로동신문』, 1959년 4월 3일, 5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9년 4월 10일, 2면; “당의고귀한 혁명전통을 배우며,” 『로동신문』, 1959년 6월 4일, 2면; “당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 『로동신문』, 1959년 6월 9일, 2면.

이 사랑'이라 표현했고, 『로동신문』 기사에서는 '아버이의 심정'을 가진 김일성에게 '아버지'라 부르고 싶었던 한 병사의 사례를 소개했다.<sup>41)</sup> 김일성을 아버지로 빗대어 표현하거나 인민 개인을 '김일성의 원수의 충직한 아들'로 지칭하는 형태가 다양한 행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sup>42)</sup> 특히 소년단에서 아버지-아들딸 관계가 제시되었다. 김일성의 생일을 맞은 소년단 연합행사에서 어린이들은 '김일성 원수의 훌륭한 아들딸'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였으며, 1961년 전국 어머니대회에서는 '김일성의 참된 아들'이 되겠다는 소년단 대표의 발언까지 등장했다.<sup>43)</sup> 1962년 새해맞이 어린이 행사에서 김일성은 '자애로운 아버지'라 언급되기 시작했다.<sup>44)</sup>

- 
- 41) “김일성 원수님의 이 크나 크고 깊은 아버지 사랑으로 하여 온나라 인민들과 함께 한결같은 심정으로 감격을 금치 못할 때마다 나는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나의 마음 속 깊이 간직해 온 그이에 대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슴 뜨겁게 회상한다”(고덕체는 인용자). 황순희, “그이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로동신문』, 1961년 4월 13일, 2면; “아! 깊고 깊은 그이의 사랑 앞에/ 내 무슨 말을 드렸으면 좋을지/ 그저 넓으나 넓은 그이 가슴에 와락 안겨/ 〈아버지〉 하고 부르고 싶은 마음”(고덕체는 인용자). “혁명적 사업 방법,” 『로동신문』, 1961년 12월 30일, 2면.
- 42) “오늘의 보천보,” 『로동신문』, 1960년 6월 4일, 2면; “백전백승의 당의기치 따라,” 『로동신문』, 1960년 10월 10일, 2면.
- 43) “김일성 원수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따라 배우자: 평양시내 1만 명 소년단원들 만경대에서 련합 모임 진행,” 『로동신문』, 1960년 4월 16일, 3면;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꽃봉오리들의 축하,” 『로동신문』, 1961년 11월 17일, 2면.
- 44) “김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평양 시내 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을 축하,” 『로동신문』, 1962년 1월 1일, 1면; “행복의 웃음꽃 만발했네,” 『로동신문』, 1962년 1월 2일, 3면

## 2) 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버지원수님' 호칭 등장

김일성의 아버지 이미지는 고아를 통해서도 구축되었다. 1958~1959년은 한국전쟁기 생겼던 '전재고아'들을 사회주의 우호국가들에 보냈다가 본격적으로 데려오는 시기였다. 전재고아를 위한 유자녀 학원을 다수 설립하고, 유자녀들을 돌보는 국가의 배려를 강조하면서 김일성의 아버지 이미지는 한층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 유자녀학원을 통해 '아버지원수님' 호칭이 탄생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한국전쟁기 생겼던 고아들을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에 맡기며 양육을 부탁하였고, 사회주의 선진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전재고아들은 1958~1959년 비슷한 시기에 대거 귀국하였다.<sup>45)</sup> 귀국한 고아 중 학생들의 경우 유자녀·초등학교 및 각급 학교에서 배치되어 학업을 계속했다.<sup>46)</sup> 북한 당국은 유자녀 및 초등학교 사업을 매우 중시하여 교육 부문을 넘어 각 지방 당 단체가 맡아 교육하도록 하였고, 별도의 체육대회와 예술축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김일성은 여러

---

45) 1958년 중국에 이어 1959년 몽골,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전재고아들이 귀국하였다. “중국에서 공부하던 우리나라 전재 고아 제2 그루빠 귀국,” 『로동신문』, 1958년 6월 25일, 2면; “몽고에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우리나라 전재 고아들 평양에 도착,” 『로동신문』, 1959년 6월 1일, 2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가 있던 우리나라 전재 고아들 귀국,” 『로동신문』, 1959년 8월 6일, 5면; “파란에 가 있던 우리나라 전재 고아들의 첫 그루빠 귀국,” 『로동신문』, 1959년 8월 9일, 3면; “체코슬로바키아 인민들의 따뜻한 품안에서 자라난 우리나라 전재 고아 첫 그루빠 귀국,” 『로동신문』, 1959년 8월 22일, 4면; “파란과 체코슬로바키아에 가 있던 우리나라 전재 고아들 전부 귀국,” 『로동신문』, 1959년 8월 30일, 4면; “루마니아에서 공부하던 우리나라 전재 고아들 귀국,” 『로동신문』, 1959년 8월 4일, 2면.

46) 타국에서 귀환하는 전쟁고아, 애국열사 자녀들의 수용하고자 1958년 9월 평양, 해주, 함흥, 양덕, 곡산, 사리원 등지에 유자녀학원들이 일제히 개원하였다. 강근조, 『조선 교육사 4』(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153~155쪽.

차례 유자녀학원 및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전재고아들을 챙겼다.<sup>47)</sup> 당국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유자녀들은 성장하였으며, 자연스럽게 김일성의 배려와 사랑에 대해 배우고 표현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961년 조선로동당 4차 대회를 맞아 열린 전국유자녀학원 및 초등학교 예술축전에서 공개된 “세상에 부림없어라”는 당시 유자녀학원에서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도록 교육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sup>48)</sup>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전재고아들이 살며 공부하던 해주유자녀학원 학생들의 고백을 담아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 곡은 가사에서 김일성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로 지칭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모두가 ‘형제’라 고백한다.<sup>49)</sup>

####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들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림 없어라(볼드체는 인용자)

---

47) “유자녀 학원 및 초등 학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자,” 『로동신문』, 1960년 2월 5일, 3면; “크나큰 사랑의 품 속에서: 남포 유자녀 학원,” 『로동신문』, 1960년 9월 3일, 3면.

48)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원아들의 슬기로운 예술: 전국 유자녀 학원 및 초등학교 예술 축전을 보고,” 『로동신문』, 1961년 11월 19일, 4면.

49) 2021년 「세상에 부림없어라」 탄생 60주년을 맞아 이 곡의 유래가 소개되었다. “우리는 영원히 사회주의를 사랑하리라: 김일성상, 김정일상 계관작품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60년 역사를 돌이켜보며,” 『로동신문』, 2021년 6월 5일.

당시 기사에서는 “그들 모두가 당은 우리의 어머니,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학원은 우리의 집이라고 소리 높여 웨치며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무한한 행복과 환희를 자랑”한다고 서술하였다. 이미 유자녀학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유자녀와 전재고아들에게 김일성에 대해 ‘아버이’, ‘아버지’라는 직접적인 지칭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50)</sup>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를 김일성의 아버지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1959년을 기점으로 항일혁명전통교육이 강화되고 아버지 이미지가 서서히 강조되는 가운데 1960년대 초반 김일성은 유자녀 및 전재고아들을 중심으로 ‘아버지’ 호칭과 지위를 획득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김일성 아버지 이미지는 향후 북한 사회 전체에 김일성이 아버지수령으로 탄생하는 데 모본이 되었다. 그러나 1962년 새해까지도 북한 사회에서 ‘아버이수령’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당시 김일성은 고아와 어린이들에게 국한하여 ‘아버지원수님’으로 자리 잡았다.

#### 4. 청년·학생들의 ‘아버이수령’으로 확장(1962~1966년)

1962년은 김일성 탄생 50주년이었다. 1959년 이후 혁명전통교육

---

50) 당시 <전국 유자녀 학원 및 초등학교 예술 씨클 공연>에서 ‘만수 무강하세요’라는 곡도 불리는데 가사는 다음과 같다. ‘따뜻한 배움의 집 지어 주시고/ 철따라 새 옷을 입혀주시는 원수님/ 행복하면 할수록 보고 싶어요/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소리 높여 부르면 새 힘 응솟는/ 사랑하는 아버지 만수 무강하세요.’ “원아들의 행복의 노래, 희망의 노래,” 『로동신문』, 1961년 12월 17일, 3면.

강화를 계기로 높아진 김일성 개인숭배 열기는 1962년 김일성의 50회 생일을 맞아 한 단계 더 높아졌으며, ‘어버이수령’이라는 호칭이 등장하였다. 김일성의 인간적인 면모와 자애로운 사람을 강조하는 수기 형식의 대중적인 글은 두텁게 전파되었으며, 특히 김일성을 ‘어버이’로 칭하는 대표적인 글이 반복하여 강조되었다. 김일성 생일 직후, 김일성의 청소년 교양 관련 교시가 전파되면서 청년부문에까지 변화가 일었다. 어린이를 넘어 청소년, 청년들에게까지 김일성을 어버이로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청년 이하의 다음 세대들에게 김일성은 확실한 ‘어버이수령’, ‘아버지원수님’, ‘경애하는 아버지’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살펴보면 이들에게 점차 ‘아버지원수님’, ‘어버이수령’이 깊숙하게 자리 잡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후대들의 목소리를 통해 성인 대중에게도 김일성의 어버이 호칭과 이미지를 확산해 갔다.

### 1) 김일성 탄생 50주년과 ‘어버이수령’의 등장

북한 당국은 1962년 김일성 탄생 50주년을 맞아 수개월 전부터 전면적인 개인숭배 작업을 준비하였다. 그 선두에 언론출판사업이 있었다. 김일성의 출중한 능력과 덕성, 따듯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소개하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인민들 속에서』 시리즈를 생일 2개월을 앞둔 1962년 2월부터 각종 기관지를 통해 내보내기 시작했다.<sup>51)</sup> 김일성 생일을 사흘 앞두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

51)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인민들 속에서』의 수록 작품들은 다음 글을 시작으로 『로동신문』 및 각종 기관지에 실리기 시작한다. 김좌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중대 당 지부 회의에서” 『로동신문』, 1962년 2월 27일, 2면.

1~3권, 『인민들 속에서』 1~2권, 총 다섯 권을 한꺼번에 출판하였다.<sup>52)</sup> 동시에 『로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기관지를 통해 혁명전통학습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점을 1962년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강조하였다.<sup>53)</sup> 단행본을 한꺼번에 출간하고,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며, 동일한 글을 다양한 매체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방식은 당시로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으며 김일성을 집중적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주목할 것은 김일성의 아버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글을 선정하여 반복하여 전파했다는 점이다. 그 예로 김옥순의 “뜨거운 아버지 사랑”과 최영옥의 “친아버지의 사랑으로”가 있다.<sup>54)</sup> 1962년 3월 2일 『로동신문』에 처음 소개된 김옥순의 “뜨거운 아버지

---

추상수, “인민들 속에서: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오>,” 『로동신문』, 1962년 3월 4일, 2~3면. 이후 4월 15일까지 약 50여 일 동안 『로동신문』에 매주 1~2편을 실어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 52)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1, 2집) 및 <인민들 속에서>(1,2,3집)를 출판,” 『로동신문』, 1962년 4월 13일, 2면.
- 53) “혁명전통학습을 생활화,” 『로동신문』, 1962년 2월 11일, 2면; “혁명 전통 학습을 실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 『로동신문』, 1962년 3월 13일, 2면; “혁명 전통학습과 실생활,” 『로동신문』, 1962년 3월 19일, 2면; “생활과 결부된 회상기 학습,” 『로동신문』, 1962년 4월 13일, 2면.
- 54) 두 작품 모두 김일성의 생일을 앞두고 『로동신문』에 게재된 이래 여러 매체에 반복하여 실렸으며 매체 서두에 배치되었다. 김옥순, “뜨거운 아버지사랑,” 『로동신문』, 1962년 3월 2일, 2면; 김옥순, “뜨거운 아버지사랑,”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2); 김옥순, “뜨거운 아버지사랑,” 『조선녀성』, 4월호(1962), 9~13쪽; 최영옥,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로동신문』, 1962년 3월 15일, 2면; 최영옥,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조선녀성』, 3월호(1962); 최영옥,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민들속에서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2).



사랑”에서 김옥순은 “낳아 기른 친부모들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깊은 김일성 동지의 따뜻한 사랑”을 찬양하면서 “이 나라의 어린이, 한 고아에 이르기까지 빠짐 없이 살살이 미치는 그이의 이 뜨거운 아버지 사랑”을 언급하였다. 최영옥의 “친아버지의 사랑으로”는 김일성의 아버지 이미지를 더 집중적으로 강조한 경우다.<sup>55)</sup> 고아였던 최영옥 네 자매 이야기는 당과 수령이 고아를 돌본다는 대표 사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었는데, 김일성 생일을 맞아 북한 당국은 이 최영옥의 이야기를 김일성의 아버지 이미지를 부각하는 사례로 변화시켰다.<sup>56)</sup> 이전 기사와 달리 1962년의 최영옥의 글은 직접적으로 김일성의 배려와 보살핌, ‘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최영옥의 목소리를 통해 강조하였다. 최영옥은 고아가 된 네 형제를 찾아 부르고, 매번 다정하게 살핀 김일성 수상을 강조하면서 김일성을 “원수님은 아버지야! ... 정말 ... 우리 아버지야!”라고 언급하고 “우리 4형제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원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고아겠어요!”라고 글을 맺는다(고딕체는 인용자).<sup>57)</sup>

55) 최영옥의 이야기는 당과 국가가 고아를 책임지는 사례로 이미 『로동신문』에 소개한 전례가 있었으나 과거에는 아버지 언급이 없었다. “영옥이네 4형제,” 『로동신문』, 1960년 6월 1일, 4면 참조. 그러나 1962년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아버지 김일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56) 1960년 최영옥 사례가 알려진 이후 그녀는 평양 초등학교 소년단 당위원장이 되었으며 전국 소년단 연합단체 행사의 전면에 서고, 각종 청소년 행사에 네 자매가 함께 별도 순서로 중창을 하는 등 유명해졌다. 평양시 청소년 학생 방송 야회 기사를 보면 최영옥이 장내에 서자 요란한 박수 속에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이미 김일성 수상이 직접 보살피는 최영옥 네 자매와 관련한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꽃봉오리들이여, 만발하라!” 『로동신문』, 1961년 6월 7일, 3면; “새 세대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평양시 청소년 학생 방송 야회 진행,” 『로동신문』, 1961년 6월 2일, 4면.

김일성의 50회 생일을 맞아 북한 당국의 기획과 조율 속에서 개인 숭배를 한층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아버지 이미지를 창조한 사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1962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당일 『로동신문』은 확연히 다르다. 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3부가 공동 축하문을 게재하면서 김일성을 모든 국가기관보다 앞선 자리에 놓고,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sup>58)</sup> 축하문 외에도 1962년 4월 15일 『로동신문』은 오로지 김일성 찬양 기사로 채워졌다. 국내 각종 기관의 축하문과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축전은 물론이고 사설, 보천보 관련 기사, 그림, 다양한 기고문 및 문예 작품 모두 김일성 한 사람에 집중하였다.<sup>59)</sup> 그동안 최고지도자 찬양이 간접적이거나 일부 대상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김일성의 50회 생일은 모든 기관과 인민이 김일성을 직접적으로 칭송하는 장이었다.

특히 1962년 4월 15일 자 『로동신문』에 최초로 ‘아버이수령’ 호칭이 등장하였다. 청년과 어린이들이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을 두고 신문 편집진은 ‘아버이 수령의 따뜻한 품속에서 활짝 꽃피는 젊은 세대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sup>60)</sup>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

57) 최영옥,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로동신문』, 1962년 3월 15일, 2면.

58) 이전까지 “경애하는 수령” 표현은 조총련 축하문, 개인기고 또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행사에 국한하여 실렸다. 이 축하문을 통해 국가 주요 부문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경애하는 수령”을 공식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축하문,” 『로동신문』, 1962년 4월 15일, 1면. 북한 당국은 이 축하문을 『근로자』, 『조선중앙년감』, 『조선문학』, 『조선녀성』, 『천리마』, 『인민교육』 등 북한 내 모든 기관지 해당 호 맨 앞에 수록하였다.

59) 김일성 탄생 50주년 기념일에 『로동신문』에 실린 시들이 대표적이다. 게재된 모든 시들이 김일성 찬양에만 집중되어 있다. “인민들의 노래,” 『로동신문』, 1962년 4월 15일\*4면.

다. 첫째로 그동안 ‘육친적 사랑’, ‘친어버이같은 분’, ‘아버지원수님’으로 지칭되던 김일성에 대해 『로동신문』이 ‘어버이수령’이라 직접 언급하면서 이후 이 표현이 김일성에 대한 공식 호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었다. 둘째, 청년과 어린이들이 함께한 사진에 ‘어버이수령’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어린이와 고아에 국한되었던 어버이 이미지가 이제 청년학생을 포함한 후대 전체로 확장하고, 대중에 이 호칭을 공개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일성의 50회 생일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항일유격대 창건 30주년(1962.4.25.), 보천보전투 25주년(1962.6.4.) 등 혁명전통을 강조하고 김일성을 높이는 행사를 계속하여 개최하였다. 혁명전통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회, 회상기 해설 담화, 연구모임, 군중대회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청년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회, 집단체조 행사를 개최하였다.<sup>61)</sup> 혁명전통을 기리는 각종 전적지 정비사업도 진행하였으며, 보천보에 김일성 동상과 인민영웅탑을 새로 건립하였다.<sup>62)</sup> 김일성의 50회 생일, 항일유격대 창건 30주년 기념, 보천보전투 25주년 기념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공식 행사에서 김일성이 가장 핵심에 서고, 일상 속 정치교육에서는 김일성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수기, 각종 교육물을 통해 그의 업적과 품성까지 반복되는 상황에서 김일성 찬양 및 미화

60) 『로동신문』, 1962년 4월 15일, 4면.

61) “항일유격대 창건 30주년을 앞두고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 해설, 담화, 회상기 연구모임 광범히 진행,” 『로동신문』, 1962년 4월 20일, 2면; “항일유격대 창건 30주년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로동신문』, 1962년 4월 26일, 1면; “항일투사들의 혁명정신 나래치는 불패의 대오,” 『로동신문』, 1962년 4월 26일, 3면; “각지에서 보천보 전투 승리 25주년을 성대히 기념,” 『로동신문』, 1962년 6월 4일, 4면.

62) 『조선중앙년감 1963』(1963.12.25. 발행)(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247쪽.

작업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구축되었다. 이 기초 위에 ‘어버이수령’ 호칭은 등장하고 널리 알려졌다.

## 2) 학생절 제정(1963년)과 청년·학생들의 어버이로의 확장

혁명전통의 강조와 김일성에 대한 찬양이 한창이던 1962년 5월, 출판·보도 및 민청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김일성은 “청소년 교양사업에 대하여” 교시를 내렸다. 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양사업을 한층 강화할 것과 학생절을 제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였다.<sup>63)</sup> 이 교시 이후 북한 당국은 학생 관련 사업에 큰 변화를 주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민청 중앙위원회는 학생 청년부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혁명전통을 강조하여 교육하고, 각종 대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들을 사회활동에 인입하고 대중 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소년단 대열 행진이나 혁명전적지 답사 등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sup>64)</sup> 당정책교양 및 공산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고, 학생들의 연령, 심리, 정서, 특징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교육하여 각종 경연대회, 답사, 행진 등을 기획하였다.<sup>65)</sup>

---

63) 김일성, “청소년 교양사업에 대하여: 출판, 보도 일군 및 민청 일군들과 한 담화 중에서”(1962년 5월 3일), 김일성, 『청소년 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141~146쪽.

64) 『조선중앙년감』 1963년, 1964년판의 교육부문 서술을 보면 모두 이 교시를 가장 처음에 놓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힌다. 『조선중앙년감 1963』, 237쪽; 『조선중앙년감 1964』(1964.9.1 발행)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4), 203쪽.

65) “웅변 대회, 작문 짓기 대회, 과학 토론회, 설계 대회, 예·말 발표회, 시 낭송 모임, 예술 경연 대회, 연극 및 영화 감상 발표회, 미술 작품 전람회, 체육대회

특히 평양학생소년궁전 개관과 학생절 제정은 이 기획의 정점에 있었다. 북한 당국은 1963년 9월 30일에 평양학생소년궁전을 개관하고, 다음 날 10월 1일 첫 학생절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에 대한 폭넓은 교육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청소년교양에 적극 활용하였다.<sup>66)</sup> 평양학생소년궁전의 경우 12층 규모의 탑식 건물, 5층 규모 본관, 7층 극장 건물, 별도 체육관을 갖춘 규모로 1960년대 당시 경제 상황에 비해 북한 당국이 청소년 교육에 상당한 역점을 둔 것이었다.<sup>67)</sup>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연구실, 연습실 등을 마련하고, 본관 정면에 ‘학생 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김일성 동지’ 동상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지도자가 김일성 수상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였다.<sup>68)</sup> 그리고 이 궁전을 개관한 다음 날에 첫 학생절 행사를 열었으며, 그 중심에 ‘어버이수령’을 두었다.

1963년 10월 1일, 학생절을 제정하며 북한 당국은 평양시 학생군중대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학생절 기념 학생군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제아동절 및 소년단 기념행사가 존재하기에, 학생절에서의 ‘학생’은 소학교 또래의 어린이가 아니라 중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및 청년을 뜻했다. 학생절은 철저하게

---

등이 중앙 및 도, 시(구역), 군들과 각급학교에서 광범히 진행되었으며 혁명전적지 및 명승 고적지 답사, 등산, 원족, 견학, 수학 여행, 대렬 행진 등도 조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중앙년감 1963』, 237쪽.

66) “지, 덕, 체 교양의 종합적인 학교: 평양 학생 소년 궁전,” 『로동신문』, 1963년 9월 30일, 4면; 사설 “첫 학생절,” 『로동신문』, 1963년 10월 1일, 4면. 이후 10월의 첫 일요일을 학생절로 제정하였다.

67) 『조선중앙년감 1964』, 218쪽.

68)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평양학생소년궁전 개관,” 『로동신문』, 1963년 10월 1일, 1면.

‘어버이수령’ 김일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중등의무교육제, 9년 기술 의무교육, 학교무상교육 등 모든 업적의 중심에는 김일성이 있었으며, 당시 기사는 대회장 정면에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청소년 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상 동지의 초상화가 붉게 피는 생화 속에 모셔져 있었다”라고 소개한다.<sup>69)</sup> 행사 참가자 일동 명의로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는데 이 편지의 서두만 보아도 당시 북한 당국이 청년 학생들에게 있어 김일성을 어떤 위치에 두고자 하는지 드러난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우리의 친근한 어버이이신 김일성 원수이시여!(고딕체는 인용자)<sup>70)</sup>

위와 같은 표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그동안 쓰이지 않았던 표현이었다. 학생절 제정을 기념하여 열린 전국학생예술씨클종합공연과 같은 행사에서도 김일성의 어버이 이미지는 나타났다. 이 행사에서 김일성은 학생들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준 아버지로 묘사되면서 공연의 핵심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공연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192명의 씨클원들의 합창 「김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노래」로 시작하고, 최영옥 4형제의 민족기악병창 「친아버지의 사랑」, 「세상에 부럼 없어라」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로동신문』 기자는 이러한 친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최영옥 4형제만이 아니라 조선의 모든 학생들이 다 누리고 있으며, 이 모든 행사가 “어버이수령의 크나큰 은덕”이

69) “학생절 기념 평양시 학생 군중 대회 진행,” 『로동신문』, 1963년 10월 2일, 3면.

70)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편지,” 『로동신문』, 1963년 10월 2일, 1면.

었다고 평했다.<sup>71)</sup>

종합해 볼 때, 1963년 학생절 제정을 통해 김일성의 아버지 이미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첫 학생절 행사는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및 아버지 이미지가 고아와 어린이를 넘어 청소년 및 청년에게까지 확대되도록 기획한 행사였다. 이제 김일성은 고아와 어린이들의 ‘아버지원수님’에서 학생, 청년을 포함한 후대 전체의 ‘아버이수령’의 의미까지 가지게 되었다.

### 3)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공식화와 반복

1962년 김일성 탄생 50주년과 1963년 학생절을 계기로 기존에 있었던 ‘아버지원수님’ 호칭 또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폭넓게 확산되었다. 1964년 이후 어린이 대상 공식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경애하는 아버지’, ‘아버지원수님’ 호칭이 반복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57년부터 1970년까지 기간 설맞이 모임 기사를 분석해 보면 ‘아버지원수님’ 호칭의 등장과 아버지 이미지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sup>72)</sup> 1956, 1957년과 달리 1958년 설맞이 모임부터 김일성에 집중된

---

71) “새세대들의 행복과 희망의 노래: 학생절 기념 전국 학생 예술 씨름 종합 공연” 『로동신문』, 1963년 10월 2일, 4면.

72) 1950년대 후반부터 신년마다 김일성과 당, 정부 지도자들은 평양시 어린이들과 설맞이 축하 모임을 정례 행사로 치렀다. 『로동신문』을 분석하면 1956년, 1957년 김일성이 함께한 설맞이 축하모임에서 어린이들이 참여하거나 편지를 드린 기사가 있다. 그리고 1958년부터는 매년 1월 1일 『로동신문』 1면에 김일성이 평양시 어린이들로부터 신년 축하 꽃다발을 받는 사진을 싣고,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평양시 내 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을 축하”와 같은 별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후 정례화된 모임이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 완공 후에는 아예 설맞이 장소까지 평양학생소년궁전으로

행사 내용과 높임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1961년까지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비유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sup>73)</sup> 그런데 1962년 설맞이 모임부터 아버지 이미지와 표현이 등장한다. 1962년 설맞이 모임 기사에서 ‘자애로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더니 1964년 설맞이 모임에서부터는 아예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을 공식 호칭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sup>74)</sup>

---

고정되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수상님께 드리는 편지: 1956년 설맞이 축하모임에 참가한 평양시 소년 일동,” 『로동신문』, 1956년 1월 2일, 1면;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 정부 지도자들과 한자리에서 새해맞는 근로자들의 기쁨: 평양 방직 공장 노동자들의 축하모임, 평양시 노동자들의 신년맞이, 학생들과 어린이들, 만경대 학원에서, 모란봉 지하 극장에서,” 『로동신문』, 1957년 1월 2일, 2면;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 정부 지도자들 어린이들과 한자리에서 새해를 축하,” 『로동신문』, 1958년 1월 1일, 2면.

- 73) 김일성 등장 순간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김일성에 둘러싸여 기뻐하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김일성 원수 만세!’를 외치는 등 김일성을 집중적으로 높이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전체 어린이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준 김일성 수상’, ‘오늘의 이 행복과 영광을 조선 인민에게 안겨준 김일성 원수’, ‘꽃봉오리들에게 노래와 웃음을 주시였고 학교와 야영소를 주시였으며 찬란한 미래마저 주신 경애하는 수령’ 등으로 김일성을 높이지만 공식 행사에서 김일성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로 지칭하지 않는다. “김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평양시 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을 축하,” 『로동신문』, 1959년 1월 1일, 2면;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을 모시고 평양시 아동들 성대한 설맞이 모임을 진행,” 『로동신문』, 1960년 1월 1일, 1면; “김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평양시내 어린이들의 신년 맞이 모임을 축하,” 『로동신문』, 1961년 1월 1일, 1면.
- 74) “김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평양 시내 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을 축하,” 『로동신문』, 1962년 1월 1일, 1면;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평양시 내 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을 축하,” 『로동신문』, 1964년 1월 1일, 2면; “김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평양시 내 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을 축하,” 『로동신문』, 1965년 1월 1일, 2면.



설맞이 모임 외에도 어린이들의 주요 행사였던 소년단 행사에서 김일성에 대한 ‘아버지’ 언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64년 이후 소년단 행사 또는 소년단을 대표하는 각종 연설이나 발언을 보아도 김일성을 ‘아버지원수님’으로 지칭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1964년 4월 전국 모범소년단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이 결의하여 작성했다고 하는 “김일성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보면 김일성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이 공식적이고 일상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75)</sup> 외부 공식 행사에 소년단 대표단이 참가하는 상황에서도 김일성을 아버지라 지칭하여 사례가 반복되었다. 1964년 민청 제5차대회, 1965년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제3차대회,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서의 소년단 축하연설에서 모두 김일성을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으로 언급하였다.<sup>76)</sup> 1964년 이후 김일성은 어린이들의 ‘아버지원수님’, ‘경애하는 아버지’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

75) 이 편지는 박순의 소년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고 『로동신문』 기사에서 밝히고 있다. 기사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년들에게 먼저 돌려주시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고딕체는 인용자)을 언급하고 있다.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가 끝났다,” 『로동신문』, 1964년 4월 13일, 1면.

76)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빛나는 앞길을 열어 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에게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올립니다.” “민청 제5차대회에 드리는 소년단 축하문,” 『로동신문』, 1964년 5월 15일, 4면;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처럼 큰 행복과 래일의 빛나는 희망을 안겨 주신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에게 최대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제3차대회에 드리는 소년단 축하문,” 『로동신문』, 1965년 9월 4일, 2면;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만세!”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 경축 대회에 드리는 소년단 축하문,” 『로동신문』, 1965년 10월 11일(특간호), 7면. 각주 인용에서 고딕체는 모두 인용자가 강조한 것이다.

#### 4) '하나 된 대가정'과 가족 이미지 생성

'아버지원수님', '어버이수령' 호칭 확산과 함께 196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가족의 역할을 부여하고 사회 전체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비유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김일성을 아버지로 호칭하면서 공식문헌에서 당을 어머니로, 어린이-청소년들을 아들딸로 비유하고,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표현하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1960년대 중반 들어 공식문헌이나 행사에서 김일성을 '아버지', '어버이'로 지칭하는 것과 동시에 조선로동당을 두고 '어머니' 이미지를 연결하는 사례가 등장했다.<sup>77)</sup> 1964년 학생절 기념 평양시 학생 군중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어머니 당의 따사로운 품'을 언급한다.<sup>78)</sup> 1965년 10월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서는 소년단 축하문에서 공히 '어머니-당'을 언급하고, 동 대회 사로칭 축하문에는 '어머니당'과 표현과 함께 사람들은 하나의 '붉은 대가정'에서 화목하게 산다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당의 따사로운 해'빛 아래 사회주의 새 세상은 이땅 우에 붉게 꽃폄나니  
사람들은 하나의 붉은 대가정에서 화목하게 살며 심장으로 노래합니다.

(중략)

어머니 당의 품에서 태여났고 자라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

77) 물론 조선로동당 또한 '어버이당'과 같은 표현으로 비유한 사례도 있었으나 소수 사례에 국한되었다. "어버이당에 드릴 로력적 선물을 마련한 승리자들을 축하한다," 『로동신문』, 1965년 9월 22일, 2면.

78)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 전사가 되자!: 학생절 기념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로동신문』, 1965년 10월 4일, 1면.

대입니다(고딕체는 인용자).<sup>79)</sup>

김일성을 아버지로 지칭하고, 당을 어머니에 비유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아들딸, 자녀의 위치를 부여받았다. 북한 당국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조선로동당과 김일성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 “당신의 아들들”이라 표현하고, 어린이, 청소년 행사에서 “《김일성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 “《당의 참된 아들딸이 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sup>80)</sup>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아들딸”이라 칭하고, “김일성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도록 하며, 계속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아버지 김일성, 어머니 당 아래에 있는 자녀의 위치로 규정하는 사례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빈번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81)</sup>

김일성의 ‘아버지원수님’, ‘어버이수령’ 호칭은 단순한 명칭에 머물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어

---

79)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 드리는 사로칭 축하문,” 『로동신문』, 1965년 10월 11일(특간호), 6면.

80) “민청 제5차대회에 드리는 소년단 축하문,” 『로동신문』, 1964년 5월 15일, 4면;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 드리는 사로칭 축하문,” 6면; “김일성 원수님의 충직한 아들딸이 되자: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수여하며 조선소년단 창립 19주년을 기념하는 평양시 소년단원들의 연합 단체 대회 진행,” 『로동신문』, 1965년 6월 7일, 1면;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을 모시고 조선 소년단 창립 20주년 기념 전국 연합 단체 대회를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1966년 6월 6일, 1면.

81) “사설: 소년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계자로 더 잘 키우자,” 『로동신문』, 1966년 6월 6일, 2면;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을 모시고 조선 소년단 창립 20주년 기념 전국 연합 단체 대회를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1966년 6월 6일, 1, 3면.

린이들이 김일성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이들은 ‘자녀’의 위치와 역할을 부여받았다. 청소년들이 김일성에 대해 ‘어버이수령’이라 불렀지만 ‘어머니당’이 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버이수령’은 부모 전체보다는 ‘아버지’의 의미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 모두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결속되었다. 가족 관계는 이들의 관계에 자연스럽게 대입되었다. 수령은 자애로운 아버지로, 당은 따뜻한 어머니로, 자녀들은 가장에게 참되게 충성하는 아들딸로 각 역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 5. 전 인민의 어버이수령으로 확장(1967~1972년)

북한사회에서 ‘어버이수령’은 1967년을 거치며 한 번 더 의미를 확장한다. 후대들의 어버이로서 의미가 컸던 ‘어버이수령’은 1967년 이후 ‘전 인민의 어버이’를 뜻하는 단어로 변화하였다.

### 1) ‘어버이수령’의 전면적 등장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회를 거쳐 1967년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동안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의 파도는 다시 높아졌다. 당시 국제환경은 공산주의 세계의 분열과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자유진영의 결집 등으로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었고, 국내적으로도 경제발전 둔화로 인한 경제개발 7개년계획 달성 실패로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다. 이때 김일성은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현 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을 통해 각종 약재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결로서 기존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옹호하고, 내부의 적대적 요소를 퇴치하는 방식

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취했다.<sup>82)</sup> 온갖 반대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사상 투쟁을 강화하며 김일성 교시를 받드는 경향이 심해졌다. 당대표 자회 이후 수령을 앞세우는 표어가 전면에 배치되었다.<sup>83)</sup>

1967년 5월 들어 북한사회에서 개인숭배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1967년 5.1절 행사를 위해 사회주의 우호국들과 제3세계 국가에서 온 80여 개 대표단을 초청하여 이들의 입을 빌어 김일성을 강도 높게 찬양했다.<sup>84)</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와 '5.25 교시' 이후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만 강조하면서 북한사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전원회의 결과와 5.25 교시는 당시 북한 사회 전면

---

82)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장 김일성 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66년 10월 6일, 2~7면.

83) 제2차 당대표자회 직후 『로동신문』 지면 내 표어를 살펴보면,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나가자’(10월 7일),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자!’(10월 8일), ‘당과 수령의 주위에 뭉친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이다’(10월 10일),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자’(10월 13일), ‘당과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0월 16일), ‘당과 수령의 배려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보육원, 교양원된 영예를 간직하고 어린이들을 공산주의건설자로 더 잘, 더 훌륭히 키우자!’(10월 22일)와 같이 당과 함께 수령을 동렬(同列)에 세운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이는 이전 당대회, 당대표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김일성(수령)을 크게 강조하는 표현이었다. 『로동신문』, 1966년 10월 7일, 1면; 10월 8일, 2면; 10월 10일, 2면; 10월 13일, 2면; 10월 16일, 2면; 10월 22일, 3면.

84) “5.1절 기념 평양시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세계 각 대륙과 여러 나라들에서 온 80개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대회에 참가,” 『로동신문』, 1967년 5월 2일, 1면. 5월 동안 『로동신문』에 ‘외국인이 본 조선’ 시리즈를 통해 외국인 대표단들이 김일성의 빼어난 리더십을 찬양하고 그에 대해 세계가 열광한다는 이야기를 내보냈다.

민족전통 문화를 말소하는 대대적인 사업이 전개되면서 인민들은 김일성의 유일사상만 접하게 되었다.<sup>85)</sup> 1967년 중반을 기점으로 김일성을 북한사회 내 모든 것의 우위에 두는 구도가 전개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로동신문』이나 『근로자』와 같은 당 기관지의 경우 그 특성상 김일성 개인숭배 상황에서도 당을 우선시하거나 당과 수령을 함께 언급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왔다. 그러나 1967년 이후 김일성만 가장 앞서는 유일한 지도자이며 당과 공화국마저도 수령의 영도를 받는 형식으로 바뀌었다.<sup>86)</sup>

1967년 중반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아버이수령’ 용어는 어린이, 학생, 청년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호칭으로 굳어졌다. 어린이, 소년단 행사마다 이미 광범하게 쓰이던 ‘아버지원수님’과 같이, 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마다 ‘아버이수령’이란 표현이 빠짐없이 등장했다. 특히, 이 시기는 ‘아버지원수님’, ‘아버이수령’이 수령을 뜻하는 일반 호칭으로 굳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수령의 아버지성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령을 지칭하는 말로 하나의 글 안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7년 국제아동절, 소년단 창립일, 학생절, 만경대혁명학원 20주년 행사 등에서 ‘아버이수령’, ‘아버지원수님’은 문단마다 등장하는 김일성의 일반적 호칭으로 변모하였다.<sup>87)</sup>

85)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312~317쪽.

86) 『근로자』의 경우 과거 김일성의 연설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교시하였다”로 주로 표현하던 것을 1967년 7호(1967년 8월 10일 발행)부터 모든 글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교시하시였다” 등의 극존칭을 전면 사용하였다.

87) “당과 수령의 품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꽃봉오리들: 홍남종합비료공장 2층천리마탁아소를 찾아서,” 『로동신문』, 1967년 6월 1일, 1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편지,” 『로동신문』, 1967년 10월 2일, 1면; “김일성동지께서 만

김일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 기관이 앞장서서 김일성을 ‘아버지 원수님’, ‘어버이수령’으로 칭하고 반복해 부르며 확산에 앞장섰다. 김일성에게 ‘친어버이 사랑’을 투사한 최영옥 사례가 가장 먼저 대표로 제시되어 강력한 전파 기제로 활용되었다.<sup>88)</sup> 학교 창립에 있어 김일성이 직접 맡기했거나 주요한 교시를 내린 대표학교도 어버이수령 확산에 앞장섰다. 만경대혁명학원은 유자녀학원을 대표하며 김일성에게 어버이 이미지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선두에 섰다.<sup>89)</sup> 『로동신문』은 그동안 당 기관지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써왔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어버이수령’ 표현을 만경대혁명학원 20주년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기사에 수록하기 시작했다.<sup>90)</sup> 김일성종합대학 또한 학생들

---

경대혁명학원창립 스무돛을 기념하는 학원 학생들의 예술씨클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1967년 10월 12일, 2면

- 88) “한없이 따사로운 품: 어버이수령께서 학생들에게 베풀어주신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사랑,” 『로동신문』, 1967년 11월 1일, 3면; “아버지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최영옥학생의 일기장을 더듬으며,” 『로동신문』, 1967년 12월 30일, 3면.
- 89) 만경대혁명학원은 김일성이 1967년 기준 37회나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했으며, 김일성과 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의 원형이 되는 학교였다.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혁명의 붉은대오: 창립20주년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로동신문』, 1967년 10월 12일, 3면;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 정부 지도자들과 한자리에서 새해맞는 근로자들의 기쁨,” 『로동신문』, 1957년 1월 1일, 2면
- 90) “인민들속에서: 어버이수령의 크나큰 품 속에서,” 『로동신문』, 1967년 10월 11일, 2면; “김일성동지께서 창립 스무돛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 및 졸업생들과 만나시였다,” 『로동신문』, 1967년 10월 12일, 1면;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창립 스무돛을 기념하는 학원 학생들의 예술씨클공연을 관람하시였다,” 2면;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혁명의 붉은 대오: 창립 20주년을 맞는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로동신문』, 1967년 10월 12일, 3면; “우리 혁명의 씨앗—혁명가 유자녀들의 충성의 노래: 만경대혁명학원창립 스무돛을

의 입을 빌려 쉽게 김일성에 대한 찬양을 소개할 수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20회 졸업식을 계기로 김일성종합대학 관련한 행사마다 ‘어버이수령’ 표현은 김일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sup>91)</sup>

당시 학생, 청년 행사와 관련하여 『로동신문』 지면에 전면적으로 ‘어버이수령’이 등장한 것은 독자인 성인 인민대중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미 학생과 청년 사이에서 ‘어버이수령’ 표현은 빈번하게 쓰이고 있었고, 이 시기 ‘어버이수령’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사회 전체에 ‘어버이수령’을 강조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전 인민의 ‘어버이수령’ 탄생

1967년 후반 김일성의 유일적 지위가 한층 더 격상되면서 이후 인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김일성을 어버이수령으로 칭하는 사례가 다수 등장하였다. 1968년에 들어서면 인민 생활을 개선하고, 군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에도 ‘어버이수령’이 등장하였다.<sup>92)</sup> 특히 1968년 들어 『로동

---

경축하는 원아들의 예술 공연,” 4면; “사진: 어버이수령 김일성 원수께서는 창립 스무돛을 맞은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고 학생들에게 친부모보다 더 크나큰 사랑과 깊은 배려를 베풀어주시었다,” 『로동신문』, 1967년 10월 13일, 1면;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의 집단제조 <혁명의 후비대>를 관람,” 『로동신문』, 1967년 10월 13일, 2, 3면.

91) “한없이 자애롭고 위대하신 어버이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겠다: 김일성 종합대학 제20회 졸업식 진행,” 『로동신문』, 1968년 2월 22일, 3면; “일편단심 어버이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겠다: 김일성 종합대학 제21회 졸업식이 있었다,” 『로동신문』, 1969년 7월 15일, 2면; “경애하는 어버이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겠다: 김일성종합대학 제22회 졸업식이 있었다,” 『로동신문』, 1970년 2월 2일, 2면.

92) “인민생활에 깃든 수령의 어버이사랑: 신의주 방직공장을 찾아서,” 『로동신문』,



신문』에 「인민들 속에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시리즈를 통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김일성 수상’, ‘수령’으로 칭하던 주어를 ‘아버이수령’으로 바꾸고 김일성과 인민들의 에피소드 속에 ‘아버이수령’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도 확실하게 인민들에게 스며들게 하였다.<sup>93)</sup>

1968년부터 김일성을 수식하는 문구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 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라는 긴 수식어는 이때부터 전면적으로 등장했다.<sup>94)</sup> 또한 조선로동당과 각 근로단체들은 김일성의 덕성과 ‘아버이수령’의 모습을 전파하는 단행본을 집중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1968년 사료청에서 아버이수령을 주제로 『위대한 수령의 품 속에서 1』을 출간한 것을 필두로 1969년 조선로동당 및 타 근로단체에서도 김일성을 아버이

---

1967년 11월 17일, 2면; “인민들 속에서: 우리 경비대초소에 오신 아버이수령,” 『로동신문』, 1968년 1월 14일, 2면; “인민들 속에서: 전사들에 대한 아버이사랑,” 『로동신문』, 1968년 1월 26일, 2면; “인민들 속에서: 우리사료청원들은 아버이수령의 손길에서 자라온 역사를 알아야 한다,” 『로동신문』, 1968년 4월 11일, 2면.

- 93)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령관 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로동신문』, 1968년 5월 18일, 2면; “인민들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돌려주신 아버이수령의 크나큰 배려,” 『로동신문』, 1968년 5월 21일, 2면; “인민들 속에서: 너희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운이 솟는다,” 『로동신문』, 1968년 6월 1일, 2면; “인민들 속에서: 우리 수상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동신문』, 1968년 7월 4일, 2면.
- 94) “《위대한 수령의 품 속에서(1)》를 발행: 학생소년출판사에서,” 『로동신문』, 1968년 5월 18일, 2면.

로 나타내는 책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sup>95)</sup> 1969년 조선로동당은 『4천만의 아버지』 시리즈를 출간하기 시작했고, 농근맹에서는 『수령의 극진한 배려와 크나큰 은덕』을 출판하였다.<sup>96)</sup> 또한 사로청은 소년단용 단행본으로 『친아버이의 사랑』을 출간하였다.<sup>97)</sup> 단행본 내 중간 제목만 보아도 “원수님의 사랑 끝없어라”, “수령의 참된 딸”, “이 행복, 이 영광 끝없어라!”, “크나큰 사랑의 품”, “나라의 동맥에 깃든 뜨거운 아버지 사랑”, “전사들에 대한 아버지 사랑”,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혜택”, “따뜻한 아버지 사랑” 등으로 아버지수령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찬양하는 글로 채워졌다.

아버이수령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넘어 전 인민의 아버지로 등극하였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인민의 아버지로 묘사되었으며, 장년층 인민들 또한 김일성을 아버지수령이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sup>98)</sup> 동시에 인민들과의 관계도 재설정되었다. 수령은 인민의 정치적 지도자에서 모든 인민을 돌보는 아버지로, 인민은 일반적인 대중에서 어버

---

95)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1』(평양: 학생소년출판사, 1968);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2』(평양: 학생소년출판사, 1969)

96) 조선로동당출판사, 『4천만의 아버지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조선로동당출판사, 『4천만의 아버지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농근맹 편집위원회, 『수령의 극진한 배려와 크나큰 은덕』(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69).

97)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중앙위원회, 『친아버이의 사랑』(평양: 사로청출판사, 1971).

98) 일제 강점기 머슴살이를 했던 중년의 노동자, 이미 자녀가 있는 영예 군인 미망인, 현지지도를 통해 김일성을 만난 노인까지 김일성을 ‘아버이’, ‘아버이수령’으로 언급하였다. “당과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남포영예군인공장 초급당위원회의 혁명전통교양에서,” 『로동신문』, 1967년 7월 3일, 2면; “인민들 속에서: 우리 수장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2면; “《수장님 은덕에 우리 마을은 천지개벽을 하였습니다》,” 『로동신문』, 1969년 6월 1일, 2면.

이에게 사랑과 배려를 입는 자녀 같은 존재로 전환되었다. 수령이 현 지지도를 통해 기업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지역의 어려움을 풀어 주면 이것이 모두 어버이수령의 ‘은덕’, ‘배려’, ‘사랑’으로 그려졌다.<sup>99)</sup> 과거에는 최고지도자의 일반적인 지도 또는 당, 국가의 시책으로 표현되던 것들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과 사랑으로 바뀌었다.

‘어버이수령’을 언급할 때의 용례 또한 변모하였다. 과거 청년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인들도 어떤 상황에서나 수령을 뜻하는 용어로 ‘어버이수령’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과거 자애롭고 배려하는 수령의 모습을 그릴 때 주로 어버이수령을 언급했지만 북한 사회 전체에 ‘어버이수령’ 호칭이 안착한 이후에는 인민들이 수령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로 변모하였다. 어버이수령은 북한 인민들에게만 아버지가 아니었으며 한반도 전체와 재외동포까지 포괄하는 ‘4천만 조선인민 전체의 아버지’로 그려졌다. 남한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늘 안위를 걱정하고, 재일 조선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애쓰며, 귀국한 재일동포들을 세세히 살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어버이수령으로 묘사하였다.<sup>100)</sup>

---

99) “영광의 땅 창성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2): 어버이수령의 위대한 손길 아래 여기 산간벽지도 《황금별》이 되었다,” 『로동신문』, 1969년 8월 2일, 2면; “영광의 땅 창성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5): 인민을 위하시는 한없이 숭고한 어버이사랑,” 『로동신문』, 1969년 8월 28일, 2면; “지방공업발전에 돌려주신 어버이수령의 뜨거운 손길,” 『로동신문』, 1970년 2월 24일, 2면; “어버이수령의 따뜻한 손길아래 우리 지방공업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승리의 길,” 『로동신문』, 1970년 6월 7일, 2면.

100) “남조선로동계급에 대한 어버이수령의 뜨거운 사랑,” 『로동신문』, 1969년 11월 26일, 4면;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는 재일조선소년들,” 『로동신문』, 1969년 8월 2일, 4면; “어버이수령의 품 끝없이 따사로워라!,” 『로동신문』, 1970년 1월 30일, 2면; “어버이수령께서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전체 청년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여성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일성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와 같이 전형적인 어구 또한 굳어졌다.<sup>101)</sup> 전국단위 각종 대회는 아버지 수령을 수식하는 표현을 정형화하고, 토론 참가자들의 입을 빌려 아버지 수령을 확실하게 일반 호칭으로 각인시키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일성 원수이시여!”라는 표현은 각종 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을 향한 맹세문이나 편지 서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대회 토론자들은 발표 제목과 내용에 빈번하게 ‘아버지수령’을 언급하였다.<sup>102)</sup> 김일성은 전 인민의 아버지수령으로서 호칭과 의미,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로동신문』, 1970년 5월 5일, 3면.

- 101) “사설: 청년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사로청 제6차대회,” 『로동신문』, 1971년 6월 21일, 1면;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여성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일성 수상님께 드리는 맹세문(조선민주녀성동맹 제 4차대회),” 『로동신문』, 1971년 10월 10일, 2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6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일성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로동신문』, 1971년 2월 3일, 1면. 이후 모든 편지에서 이 문구는 편지의 서두를 장식하는 기본형태가 되었다.
- 102)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 『로동신문』, 1969년 8월 28일, 1면;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 『로동신문』, 1970년 4월 1일, 2면;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상님께 드리는 맹세문,” 『로동신문』, 1970년 5월 6일, 1면. “전국가금업일군대회에서 한 토론(요지),” 『로동신문』, 1970년 4월 1일, 4면;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4차회의에서 한 토론들(요지),” 『로동신문』, 1970년 4월 24일, 4~6면.

인민들의 개별적인 발언은 물론 공식 행사와 문서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아버지수령이 사용되었다.

1972년 김일성의 60회 생일은 전 인민의 아버지수령을 확증하는 자리였다. 『로동신문』은 4월 15일 정기신문 외에 김일성 탄생 60주년 기념 특간호를 별도로 발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공동으로 축하문을 발표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하여 김일성에게 공화국 2중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sup>103)</sup> 당과 근로단체에서는 김일성이 인민의 아버지임을 명확히 하는 제목의 강연회를 진행하였다.<sup>104)</sup>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시다’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이 로동자, 농업근로자, 인텔리, 군인,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 학생, 남조선 인민, 재일동포 등 모든 계층의 자애로운 아버지임을 강조하는

---

103)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로동신문』, 1972년 4월 15일, 1면;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중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1972년 4월 15일, 1면.

104)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었으며, 여맹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 녀성들의 해방의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자애로운 품 속에서 일하며 사는 우리 로동계급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사로청 중앙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 청년들을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고 계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민군대 및 인민경비대 구분대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 군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워주시고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각각 개최하였다(고딕체는 인용자). 『조선중앙년감 197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58~60쪽.

글을 게재하고 교육하였다.<sup>105)</sup>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이 국가주석에 오르며 수령은 지금과 같은 정점에 올랐다. 1973년판 『조선문화어사전』에 ‘아버이수령’, ‘어머니당’을 새롭게 수록하고 ‘아버지’의 정의마저도 새롭게 바꾸어 추가한 것은 북한사회에 ‘아버이수령’이 등장하여 굳건히 자리 잡았음을 확정하는 인장(印旌)이었다. 이제 ‘아버이수령’은 북한사회에서 김일성을 지칭하고, 수령과 인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대표적 단어가 되었다. 수령과 인민의 정치적 관계에 ‘가족’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접붙이는 변화도 이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 6. 결론

‘아버이수령’의 등장과 관련하여 1972년 이전의 공식 문헌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는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된 1967년 이전에 이미 ‘아버지지원수님’, ‘아버이수령’이 출현했다. 1959년 혁명전통교육 강화 기조 속에서 김일성의 인간적 면모와 아버지 이미지가 강조되고, 당시 전쟁 고아의 귀국과 유자녀학원 설립이 맞물리면서 고아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아버지지원수님’이라는 호칭이 등장하였다. 1962년 김일성 50회 생일을 계기로 북한 사회에서는 강력하게 김일성의 덕성을 찬양하는 개인숭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후 공식 행사와 매체를 통해 ‘경애하는 아버지’, ‘아버이수령’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북한에서 ‘아버이

---

105) 『조선중앙년감 1972』, 193~264쪽.

수령'은 김일성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김일성의 덕성을 찬양하고자 했던 1959년부터 1966년에 이르는 기간을 통해 '아버지원수님', '어버이수령'은 서서히 내용과 형식을 갖추며 탄생하였다. 1967년 이전에 이미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어버이수령'은 공식적인 호칭으로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1967년 이후 '어버이수령'은 전 인민의 어버이라는 의미까지 획득하고 사회 전체에 확산되었다.

둘째, 북한 당국은 정치교육 및 보통교육 부문에서 생성되던 어버이 이미지 및 호칭을 김일성 개인숭배 강화를 위해 각 시기마다 점진적으로 인입하고 구축하였다. 유자녀를 중심으로 고아들의 어버이로서 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자 이를 서서히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확장하는 행태를 취했다. '친어버이 사랑', '어버이 같은 분'과 같은 비유적 표현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어버이수령' 등 공식 호칭을 제시하고, 이후 전 인민을 대상으로 '어버이수령'이 자리 잡기까지 점진적인 확장과 함께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전파에 있어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 유자녀학원, 보통교육부문, 소년단과 청년동맹, 재일조선인 등 다양한 계층, 조직이 매개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어버이수령'은 전 인민을 아우르는 어버이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수령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호칭에까지 나아갔다. 따라서 '어버이수령'의 등장을 북한 당국의 전일적인 기획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당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금씩 의도와 용례를 변경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특히 김정일의 후계자 부상 이전에 이미 '어버이수령'은 등장했고 최초의 의도는 김일성에 국한되었으며, 이후 북한 당국이 점진적으로 후계체제와 연결해 변용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에서 '어버이수령'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의미는 주로 부

모-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이미지에 가까웠다. 1960년대 초중반의 경우 주로 어린이와 고아, 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버이수령’의 이미지는 자애로운 아버지,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의 의미가 대부분이었으며, 1967년 이의 연장선에서 전 인민의 어버이로 확장되었다. 어버이에 대한 강조는 지도자-인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해갔다. 김일성을 ‘어버이(아버지)’, 당을 ‘어머니’로, 인민대중을 ‘자녀’로 명명(naming)하고 부모-자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김일성과 대중 사이의 정치적 관계는 가족 관계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덧입었다. 정치적 국가공동체는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운명적 가족공동체로 비견되었으며, 전재고아, 소년단과 청년, 재일조선인과 각 조직 열성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버이수령을 향해 자녀로서 충성을 다할 것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1980년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한참 전인 1960년대부터 이미 새로운 관계 프레임은 제시되고 일정한 자리를 잡아 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초중반에 이미 ‘어버이수령’이 등장한 사실은 현재 북한 사회의 확립과 굴절을 설명하는데 있어 1967년 유일사상체계에만 거의 모든 초점을 돌리는 경향을 다시 성찰하게 한다. 또한 1980년대 사회정치적생명체론 및 사회주의대가정론의 틀로 ‘어버이수령’을 파악하려는 접근 또한 재고하게 한다. 북한은 1960년대 초 이미 강력한 권력 집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여러 차례의 시도를 거치며 당시 인구 구성에서 월등했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의와 지지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어버이수령’의 등장으로 인해 1960년대 대중의 눈높이에서 이미 새로운 호칭과 그로 말미암은 새로운 관계는 싹트고 있었다. 굴절이 아닌 연속의 측면에서 북한 1960년대 연구가 필요하다.



21세기 현대사회에도 북한 당국은 여전히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반복하며 3대에 걸쳐 '어버이수령'을 호출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버이수령'은 의미를 변화시키면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60년대 인민들에게 '어버이수령'이 등장한 부분에만 초점을 두어 한계가 있다. '어버이수령'이 낳은 사회적 의미와 힘을 고려할 때 북한 '어버이수령'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될 필요가 있다.

■ 접수: 7월 10일 / 수정: 8월 7일 / 채택: 8월 11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강근조, 『조선 교육사』 4(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농근맹 편집위원회, 『수령의 극진한 배려와 크나큰 은덕』(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69).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조선 문화어 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조선로동당출판사, 『4천만의 아버지』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_\_\_\_\_, 『4천만의 아버지』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말사전』(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출판사, 1962, 변각: 학우서방, 1965).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1』(평양: 학생소년 출판사, 1968).

\_\_\_\_\_,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2』(평양: 학생소년출판사, 1969).

\_\_\_\_\_, 『친어버리의 사랑』(평양: 사료청출판사, 1971).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조선중앙년감 1961』(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조선중앙년감 196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조선중앙년감 196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조선중앙년감 196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4).

『조선중앙년감 197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 2) 논문

김시중,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 『근로자』, 7호(1958), 3~16쪽.

김옥순, “뜨거운 아버지사랑,”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62), 1~14쪽.

\_\_\_\_\_, “뜨거운 어버이사랑,” 『조선여성』, 4월호(1962).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당 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김일성 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58년 12월 9일.

\_\_\_\_\_,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김일성 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58년 3월 20일.

\_\_\_\_\_,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인민군 324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동경: 학우서방, 1963), 308~349쪽.

\_\_\_\_\_, “청소년 교양사업에 대하여: 출판, 보도 일'군 및 민청 일'군들과 한 담화 중에서”(1962년 5월 3일), 김일성, 『청소년 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141~146쪽.

최영옥,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민들속에서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2), 18~41쪽.

\_\_\_\_\_,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조선여성』, 3월호(1962).

“축하문,” 『조선문학』, 4월호(1962).

“축하문,” 『조선여성』, 4월호(1962).

“축하문,” 『천리마』, 4월호(1962).

“축하문,” 『인민교육』, 4월호(1962).

“축하문,” 『근로자』, 4월호(1962).

### 3) 신문

『로동신문』, 1949년 12월 15일; 1950년 6월 27일; 1951년 1월 27일; 1956년 1월 2일; 1957년 1월 1일; 1월 2일; 6월 1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28일; 1958년 1월 1일; 3월 20일; 6월 1일; 6월 25일; 7월 1일; 12월 9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28일; 1959년 1월 1일; 1월 13일; 1월 16일; 1월 23일; 2월 5일; 2월 11일; 3월 3일; 4월 2일; 4월 3일; 4월 10일; 6월 1일; 6월 4일; 6월 9일; 7월 25일; 8월 4일; 8월 6일; 8월 7일; 8월 9일; 8월 22일; 8월 30일; 12월 14일; 1960년 1월 1일; 2월 5일; 4월 16일;

6월 1일; 6월 4일; 9월 3일; 10월 10일; 1961년 1월 1일; 1월 25일; 4월 13일; 6월 7일; 11월 17일.; 11월 19일; 12월 17일; 12월 30일; 1962년 1월 1일; 1월 2일; 2월 11일; 2월 27일; 3월 2일; 3월 4일; 3월 13일; 3월 15일; 3월 19일; 4월 13일; 4월 15일; 4월 20일; 4월 26일; 6월 2일; 6월 4일; 1963년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964년 1월 1일; 4월 13일; 5월 15일; 1965년 1월 1일; 6월 7일; 9월 4일; 9월 22일; 10월 4일; 10월 11일(특간호); 1966년 6월 6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10일; 10월 13일; 10월 16일; 10월 22일; 1967년 5월 2일; 6월 1일; 7월 3일; 10월 2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1월 1일; 11월 17일; 12월 30일; 1968년 1월 14일; 1월 26일; 2월 22일; 4월 11일; 5월 18일; 5월 21일; 6월 1일; 7월 4일; 1969년 6월 1일; 7월 15일; 8월 2일; 8월 28일; 11월 26일; 1970년 1월 30일; 2월 2일; 2월 24일; 4월 1일; 4월 24일; 5월 5일; 5월 6일; 6월 7일; 1971년 2월 3일; 6월 21일; 10월 10일; 1972년 4월 15일; 2021년 4월 17일; 6월 5일; 2022년 12월 17일.

#### 4) 기타 자료

조선중앙TV, 2022년 10월 17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강진웅, 『주체의 나라 북한』(서울: 오월의 봄, 2018).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파주: 창비, 2013).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서울: 역락, 2020).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서울: 한울, 2003).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서울: 동아일보사, 1994).

- 에델만, 머레이(Murray Edelman), 『정책결정의 상징성』, 유영옥 옮김(서울: 홍익재, 1994).
-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남기정 옮김(파주: 창비, 2014).
- \_\_\_\_\_,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서동만·남기정 옮김(파주: 돌베개, 2002).
-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서울: 책세상, 2001).
-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파주: 창비, 2020).
- 헬렌-루이즈 헌터(Hunter, Helen-Louise), 『CIA 북한보고서』, 남성욱·김은영 옮김(서울: 한승, 2001).

## 2) 논문

- 강진웅, “남북한의 국가와 가족: 체제변화와 가족주의의 변형,” 『한국사회학』, 제44집 5호(2010), 139~175쪽.
- 김희정, “북한의 ‘아버이’ 이미지와 애착,”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2호(2019), 51~75쪽.
- 류승주, “북한의 민족문화전통과 항일혁명전통 수립(1945~1967)”(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문미라, “1950~1960년대 북한의 ‘혁명전통’ 확립과정과 역사인식의 변화,” 『역사와 현실』, 제119호(2021), 237~271쪽.
- 박세진, “아버이수령의 이름과 북조선 사회의 원자(原子): 사회정치적 생명의 말과 삶,” 『문화와 사회』, 제30권 1호(2022), 109~179쪽.
- \_\_\_\_\_, “프로파간다라는 시선을 넘어서: 수령님 노래와 아버이의 나라,” 『문화와 사회』, 제27권 2호(2019), 229~278쪽.
- 서동만,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서동만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북조선 연구』(파주: 창비, 2010), 122~168쪽.
- \_\_\_\_\_, “북조선의 유교 담론에 관하여: 김정일의 통치 담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 연구』, 2006년 상반기호(2006), 99~148쪽.

- 유광진·김무근·김용현, “로동신문의 변화를 통해 본 북한 변화(1945~1972): 정치군사부문 변화,”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서울: 선인, 2006), 55~107쪽.
- 이창현, “극장국가 북한의 기원, 1962~1972: 어버이수령의 등장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전미영, “김정은 시대의 정치언어: 상징과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1~30쪽.
- 정교진,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 ‘어버이’ 성격 분석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1호(2017), 25~51쪽.
-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최경희, “북한 ‘수령권력’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 제32권 4호(2016), 133~171쪽.

### 3) 신문

『조선일보』, 2023년 2월 11일.

『국민일보』, 2023년 3월 6일.

### 4) 기타 자료

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11월 18일.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Dewey, John and Arthur F. Bentley, *Knowing and Known*(Boston: Beacon Press, 1960).

Geertz, Clifford, *Negara: The Theatre State in 19th Century Bali*(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Lakoff, George, *The All New Don't Think of an Elephant!*(White River Junction: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2014).

2) 논문

Kelly, Catriona “Riding the Magic Carpet: Children and Leader Cult in the Stalin Era,”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49, No.2(2005), pp.199~224.

## The Origin of North Korea's 'Fatherly Leader (*Eobeoi Suryeong*)': Focusing on its Emergence in Official North Korean Materials before 1972

Lee, Chang Hyu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mergence of the term 'fatherly Leader (*Eobeoi Suryeong*)' by analyzing North Korean official media. In North Korea, the terms 'the Father Marshal' and 'the fatherly Leader' had emerged in North Korea even before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was established in 1967. In the late 1950s, Kim Il Sung's fatherly image was materialized through the Revolutionary Traditional Education and the School for Bereaved Children, and 'the Father Marshal' of orphans and children emerged. In 1962, on Kim Il Sung's 50th birthday, the title "the fatherly Leader (*Eobeoi Suryeong*)" appeared, and this spread among the youth. After 1967, "the fatherly Leader" spread to the entire society and Kim Il Sung became the father of all people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did not plan and implement "the fatherly Leader"



exclusively from the beginning, and the fatherly image and title were created in the education sector and gradually spread throughout society. When the term “the fatherly Leader” first appeared in North Korea, it was primarily meant as father figure in the context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did not have its contemporary meanings, such as the Head of the Great Socialist Family or the Father who gives political life.

Keywords: the fatherly Leader (*Eobeoi Suryeong*), the Father Marshal, the Motherly Party, father image, gradual diffusion.